

[보도자료]

“우리사회 성문화, 청소년 참여로 변화를 만들다”

한국오가논-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세이프루언서’ 활동 공유 대회 및 청소년 성건강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110 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 참여, 청소년 성건강 정책 제안문 결의
- 청소년 문화 반영하는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제안
-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프로그램 ‘세이프루언서’의 전국 23 개 동아리 활동 시상도 함께 진행

2023 년 12 월 11 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이명화, 이하 한성협)가 지난 12 월 9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이들이 공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프로그램인 ‘세이프루언서’에 참여해 온 전국 청소년들과 ‘활동 공유 대회 및 청소년 성건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이프루언서는 SAY(Sexuality About the Youth)와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발언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23 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에 총 200 명이 참여해 건강한 성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세이프루언서에 참여해 온 청소년과 지도자 11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올 한 해 활동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2023 세이프루언서 청소년 성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2023 세이프루언서 청소년 성건강 정책 제안문’에는 △연령에 적합하고 청소년의 문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을 통한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성협 이명화 상임대표는 “이번 활동 공유 대회와 청소년 성건강 정책 토론회는 1 년간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가꾸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전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세이프루언서와 함께하는 이번 국회에서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의견을 더욱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 의미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세이프루언서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오가논과 한성협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업무협약을 가진 이래, 세이프루언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평등에 대한 책자 제작, 성문화 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 성 지식을 활용한 보드게임 개발, 성건강 키트 개발,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